

新哲學의 指導 原理

辨證法的 世界の 彼岸 ⑤

金基錫

사람들은 이 存在에 대하여 思惟를 對立 식혀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성이 만습니다. 엇던이들은 存在가 思惟를 規定한다느니, 엇던이들은 思惟가 存在를 産出한다느니, 또 엇던이들은 存在와 思惟가 辨證法的으로 統一이 되어야 한다느니 하고, 그러나 실상은 存在와 思惟가 對立되는 것이 아니고 이 思惟마저 어느 意味의 存在가 아니겠습니까. 思惟마저 存在일진대 『存在가 意識을 規定한다』는 오늘의 빛나는 命題는 果然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들은 무론 客觀的 自然에 대한 主觀的 理性이 잇슴을 압니다. 이제 이 客觀的 自然만이 眞實한 存在이요, 主觀的 理性은 단순한 假像에 지나지안는 것이 잇겠습니까.

오늘의 現實主義가 客觀的, 具體的, 感性的인 것을 따르는 나머지 이 理性이나 觀念 가튼 것을 主觀的, 抽象的이라고하여, 存在의 世界로부터 물리치려는 그릇된 傾向에 나는 反對합니다. 哲學은 무론 한갓 理性이나 認識에 대한 論議에뿐 그쳐서는 안됩니다. 哲學은 본대 廣汎한 現實 속에 자기를 解放시켜야하지 안습니까. 그러나 理性이나 觀念에 대한 思惟, 規定 및 批判이 그 자신 哲學의 한 課題가 된다는 것을 이저서는 안됩니다. 우리들은 아페서 存在가 있다. 存在가 움죽인다고 헛습니다. 이 『存在가 있다』란 그 자신 存在는 아닙니다. 存在가 時間 속에서 움죽인다고 할 때 存在는 어디까지던지 存在者이요, 이 存在의 運動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存在가 있다.』 또는 『存在가 움죽인다.』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단순한 無는 아닙니다. 『存在』 혼자도 無가 아닌데 하물며 『存在가 있다』가 無가 될 까닭이 잇겠습니까. 이 『存在가 있다』를 우리들은 『存在』와 구별하여 『事實』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事實』그렇습니다 『存在』와 구별되는 『事實』이란 것이 잇습니다. 存在와 구별 된다는 것보다 存在를 그 속에 산다고 보아서 엇더켓습니까. 存在가 따로이고, 事實이 따로 잇느냐고요. 그랄까닭이 잇겠습니까. 存

在는 본대 事實에 있어서 자기를 存在로 限定하고, 事實을 워낙에 存在에 있어서 자기를 事實로 開展시킵니다. 『모도는 判斷이다』 라는 말은 虛像存在를 概念, 事實을 判斷으로 생각하여 『모도는 事實이니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無란 것이 있지않습니까. 過去의 哲學은 이 無란 것을 한번도 진실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한 개의 새로운 問題로 우리들의 압해 주어지는 無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은 存在가 본대 時間的인 存在, 따라서 運動적인 存在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運動이니 生成이냐는 엇더케 되어서 이러나는 것이겠습니까 存在는 무론 그대로 存在가 아니라 자기를 엇던 것인 存在로 限定하고 다시 그것은 時間 속에서 자기를 個別의 個別또는 特殊의 特殊로 無限히 限定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첫째 存在가 있다는 것은 存在 아닌 것이 存在와 마조 서는데서 비로소 存在가 자기를 指定 식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存在가 그것을 죽이고 그것이 存在를 죽이는데서 비로소 存在가 자기를 現實的인 存在로 限定하게 되지 않습니다. 存在가 그것을 죽이고 그것이 存在를 죽이는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은 아페서 『存在』와 구별되는 『事實』이란 것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事實은 어디까지던지 存在를 그 속에 사는 것이요 存在와 마조 서고 存在에 대여 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存在에 마조 서는 것은 사실 存在에만 마조 서는 것이 아니고, 事實에까지도 마조 섭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存在와 事實의 共同의 敵이 되지 안하면 안됩니다. 存在와 事實을 부단히 죽이려고 대여 드는 이 共同의 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암만해도 無가 아니겠습니까. 存在가 事實의 背景으로서의 無가 아니겠습니까. 남의 背景으로서의 無, 이 無의 背景에 싸히는데뿐 있어서 存在와 事實은 자기를 有의 世界로 限定 또는 主張 됩니다. 有는 부단히 無를 버서나리고 애쓰고 無는 부단히 有에 숨어들려고 대여드립니다. 이 有에서 無, 無에서 有에의 久遠한 圓環運動. 이 有의 事實로서의 無의 世界를 가지는데서 世界에는 一切의 運動, 一切의 生成이 이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때로 『運動의 論理』는 본대 자기를 『無의 論理』에로 止揚 식혀야 하는 宿命 및 志向을 가집니다. 存在와 觀念과 事實과 無, 이것들은 한 가지로 진실한 意味의 實在의 世界를 構成하고, 나아가 哲學이 그 우에서 꺾업시 달리는 現實의 原理를 展開 식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상하게 들리시겠습니까마는 이 存在, 觀念, 事實, 無는 그것이 哲學的 了解의 對象으로서의 現實인데서 조금도 엇고 김흔 差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現代에 이르러 哲學은 實在論의 色彩를 濃厚하게 띄면서 存在, 生, 人間,

社會, 歷史, 文化 가튼 것들을 그 根源性에 잇서서 解明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哲學의 形而上學에의 頹落은 아닙니다. 하기야 이런現實存在의 理解를 企圖 하면서도 이 現實的 世界의 背後에 어떤 絕對精神의 攝理와 支配를 읽으려는 이가 업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哲學을 神學에 옮기려는 부질 업는 『헤-겔』의 情熱에 지나지 않는다고 나는 봅니다.

朝鮮에도 웨 얼마 안잇서서 學界란것이 形成되고 거기에서 哲學을 論議하는 이들이 하나, 둘 나서지 안켓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얼마 동안은 단순한 哲學研究, 哲學解說에 떠러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칸트』가 엇더코, 『헤-겔』이 엇더코 또 더 내려 와서는 『딜타이』 『하르트만』, 『하이텍겔』이 엇더코, 그러나 우리들은 단순한 『知識』을 배울 것이 아니라 『哲學』을 배워야하고 單純한 『哲學』을 배울 것이 아니라 『哲學하는 일』을 배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나는 『哲學하는 일』 自體를 한 개의 現實로 보고 더 나아가서는 現實의 實現 또는 그 變革까지로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 哲學徒들 압헤 얼마나 만흔 問題들이 노혀 잇습니까. 時間과 限定, 特殊와 普遍, 理論과 實踐, 自然과 歷史, 生産과 勞動. 이 만흔 問題들을 바로 解明하기 위하여 一生을 바쳐 『필로조피렌』의 世界 哲學的 理解의 世界에 드러서려는 이는 계시지 안습니까. (끝)